



교회론

왕의 사랑

1 기도

2 찬송 일어나라 (155쪽)

3 말씀 읽기 아가 4:7

7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4 말씀 이해하기

아가서에서 사랑에 빠진 왕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녀는 포도원지기였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거무스름했습니다(1:5). 그러한 흠이 사랑에 빠진 왕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왕과 여인의 관계를 종종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엡5:22-33). 그러므로 이 왕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흠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커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엡5:25).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습니다.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에 교회는 풍성한 은총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엡1:23). 교회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 유는 머리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을 따릅니다.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신부된 교회는 다른 신이나 구원자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셋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혼인식에 비유합니다(마25장, 계21:2).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단장합니다. 이 단장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계19:8). 부부는 서로 닮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품과 행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술람미 여인을 향한 왕의 칭찬은 무엇입니까?(7절)

2.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종종 □□□□와 □□의 관계로 비유되었습니다.

3.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4.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교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5.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6 함께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7 주기도문